

덴마크, 2020 년까지 유기농 농업 2 배 확산 계획 발표

덴마크 정부는 2020 년까지 유기농 경작지를 2 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유기농식품 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유럽의 유기농 식품 소비 규모 즉 수요는 4 배 이상 늘어났지만 경작지는 2 배 가량만 들어났다.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은 수출입에서 해답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 늘어나는 수입에 따른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해 EU 는 유기농 식품 수입 규제를 세워 2017 년부터 발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EU 의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한국 유기농 식품의 수출이 기존에 비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의 이 같은 움직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 월 덴마크 정부는 유기농 농장의 규모를 2020 년까지 2 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영국의 식품업계 전문지인 푸드 네비게이터(Food Navigator)가 보도했다.



덴마크의 유기농 분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 덴마크 유기농 무역 협회(Trade association Organic Denmark)에 따르면 유기농 식품 소비는 전체 소비의 8%를 차지한다.

유기농 시장 확대 계획에 따르면 공공유치원, 병원, 정부기관 등 매일 80 만분의 요리를 유기농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확대목표액의 60%를 공공분야에서 해소할 계획이다. 덴마크 농식품부 장관 Dan Jørgensen 은 "서유럽에서 가장 용감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분야가 이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까지 2007년을 기준으로 유기농 경작지가 2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개발과 농민들과의 대화를 동시에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로 53.7 백만 유로가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덴마크 오가닉 협회와 최대 식품유통기업인 아를라(ARLA)도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아를라에 따르면 현재 오가닉 시장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고 2014년에는 지난 2년간의 수치에 비해 30%가 증가했다.

EU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전역에서 유기농 시장의 규모는 지난 10여년에 비해 4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유기농 경작지의 규모는 2 배만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적어 현실적으로 수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럽의회는 지난해 3월 유기농 식품 수입의 엄격한 규정을 신설해 2017년 경에 발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정보 출처

1. 덴마크 오가닉 협회 회원사 정보

<http://organicdenmark.dk/>

2. 덴마크 농업 및 식품 의회

<http://www.agricultureandfood.co.uk/>

3. 덴마크 농식품부 유기농 분야

http://www.foedevarestyrelsen.dk/english/Food/Organic_food/Pages/default.aspx

4. 식품전문지

Foodnavigator.com

작성 : 파리지사 안광순 ksahn@at.or.kr